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Family Support Syst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Exploring a Causal Model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박 성 연

대학원생 최 혜 경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 **Seong-Yun Park**

Graduate Student; **Hye-Kyung Choi**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V. 결과 및 해석

VI. 요약 및 결론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which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reby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strategy to enhance their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by means of a family support system.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the family is the main origin from which emotional and economic satisfaction of the aged evolves, and satisfaction is facilitated by societal assistance for the family to financially support old persons. These theoretical antecedents are incorporated into a causal model for empirical verification.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Seoul with 300 individuals who are 60 years old or ov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theoretical assertions of previous studies.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mily solidarity is high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econd, family solidarity is raised by the intensity of their social association,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Third, education, income and marital status as exogenous variables do not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olidarity, despite their strong overall correlation. Causal effects of each variable are linked to family solidarity and then to life satisfaction through a family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From the findings several tentative conclusions are drawn which giv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The most efficient way of enhancing their life satisfaction is to activate the

familial support system via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It is proposed tha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 assisting poor family resources and relieving the strains and discords confronted within the family.

I. 서 론

지금까지 노년학분야에서는 노년기에 대두되는 제반 의존성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노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다.¹⁾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앞서의 연구들은 생활만족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찾아내는데에 주로 관심이 주어졌을 뿐, 노인의 의존욕구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즉 노인부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노인부양은 담당자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에 의한 공적부양과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사적부양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특히 사적부양의 담당자로서의 가족은 복지추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으로서, 안으로는 그 성원의 생활변화에 대한 대응 내지는 보장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 그 성원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안정감을 제공해준다.²⁾ 따라서 가족은 노인들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된 부양체계라 할 수 있다.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은 최근에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이제까지 노인부양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사회부양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연구들이 가족이 노인에게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제공해주는 주된 원천임을 입증하게 되자,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의미가 차츰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³⁾ 이러한 추세에서 노년학자들은 특히 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가족을 노인과 사회부양체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단위로서 제시하고 있다.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들에 의해 부양되고 있고, 노후생활의 모든 관심과 희망이 그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부양은 우리나라 노인들에 있어 매우 중

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있어서 가족부양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가족부양체계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가족부양체계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노인부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사회의 상호보완적인 노력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명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설적인 인과모형으로 구성한 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노인의 생활만족도

1. 노인생활만족도의 정의

생활만족도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로서,⁶⁾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진다.⁷⁾ 다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⁸⁾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이 갖는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 즉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노년학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쟁점이었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이론은 Cumming과

Henry의 '사회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우선 들 수 있다.⁹⁾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노년에 달하면 대인관계에서의 역할, 활동 그리고 자아투입의 양을 거두어들리게 된다고 한다. 대인관계의 감소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나 책임감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시켜줌으로써 오히려 만족의 정도를 더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Havighurst와 Albrecht는 인간의 대인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해진다는 '사회활동이론(social activity theory)'을 주장하였다.¹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 의해 감소하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의 두 이론이 갖는 타당성은 Havighurst, Neugarten 및 Tobin의 연구에서 비교 검토되었다.¹¹⁾ 이들의 연구는 노인이 지닌 성격유형에 따라 만족을 찾는 범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획일적인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주어진 특성과 그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더우기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되어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결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① 결혼상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¹²⁾ 사망률이나 자살률은 더 낮으며, 정신질환도 더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¹³⁾

그러나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

도가 낮아지는 것은 배우자를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배우자의 상실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박탈이 특히 강조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노인들은 소득의 근원인 배우자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못하며, 따라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¹⁴⁾ 또한 결혼을 통하여 충족되었던 욕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대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¹²⁾ 노인들이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인 고립도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¹⁵⁾

② 건강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¹⁶⁾ 간혹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는 하였어도 그것은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의 강도에 관한 것이었지, 관계의 유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¹⁷⁾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곧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므로, 건강은 노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dwards와 Klemmack은 건강한 노인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고,¹⁸⁾ Liang은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¹⁹⁾ 건강은 거주양식 및 주거생활과도 관련을 가져, 건강이 나쁠수록 노인들은 더 자유로운 생활공간을 갖기 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²⁰⁾

③ 계층

노인이 객관적으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주관적 계층의식은 대체로 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¹⁾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요소들, 즉 직업, 교육, 소득은 각기 별개의 변수로 고려되었을 때에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즉 직업적 지위²²⁾와 교육정도,¹⁷⁾ 그리고 소득수준¹⁴⁾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이 커지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의 생활조건들을 결정지워줌으로써 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Bull과 Aucoin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만족한 노인들이 사회관계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¹⁶⁾ Chatfield는 소득이 적으면 자신의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계속 불만스러운 주거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²²⁾ Liang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만족여부가 노인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¹⁹⁾

④ 은퇴 및 경제생활

노년학 연구들은 은퇴가 당사자이든, 그 배우자이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서 은퇴는 곧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은퇴 자체 보다는 은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인 궁핍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²²⁾ 노인들은 실제 경제상태 보다는 은퇴로 인한 소득의 감소량을 더 크게 지각하므로, 실제 소득 수준 보다는 경제적인 만족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⁷⁾

이러한 경제적인 만족감은 노인의 다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되면 사회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되고,²³⁾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더 많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²⁰⁾

⑤ 주거 및 물리적환경

주거는 노인의 기거,宿聚, 휴식 등 제반 생활의 중심부가 되는 곳이므로, 직접·간접으로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Lawton과 Cohen은 더 좋은 주거로 이사한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훨씬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²⁴⁾ Schooler도 주거 및 물리적환경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²⁴⁾ Wolk과 Telleen은 긴장이 적은 환경, 즉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²⁵⁾

한편 Woodward 등은 생활환경이 만족스러울때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감소된다고 하였고,¹⁶⁾ Streib와 Beck은 노인의 쾌적한 주거상태는 가족적·비가족적 집단유대를 육성시킴으로써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복지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³⁾ 주거 및 물리적환경과 사회관

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하였다.

⑥ 사회관계

노인의 사회관계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생활구변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개인적인 가치감과 사회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준다.²⁶⁾ 특히 사회관계 중 친구의 존재는 노인에게 있어서 절박한 사회적 상실에 대한 역할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상실해가는 노인들은 친구와의 결속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¹⁷⁾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활동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여 주는 선행연구들도 많다.²⁷⁾

⑦ 가족관계

노인에게 있어서 그 자녀와의 유대는 다른 어떤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³⁾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거주나 경제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²⁸⁾ 따라서 노인의 전체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⁷⁾ Bengtson, Olander 및 Hoddad는 노인과 그 자녀와의 결속이 강할수록 노인의 복지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²⁹⁾ Quinn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 사이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의 일치 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¹⁶⁾

더우기 가족은 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조건에 따라 그 가족관계가 좌우된다.³⁾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⁷⁾ 주거환경이 노인에게 적합하지 못할때²⁰⁾ 노인들은 그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력이 감소하거나,¹⁹⁾ 건강이 나쁘거나,³⁾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에는¹⁶⁾ 가족자원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등 노인의 부양기대가 더 높아지므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된다. 이러한 노인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원교환의 형태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²⁸⁾ 그것은 노인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자원의 양이 상이하기 때문이

다.

B. 노인부양체제로서의 가족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김태현이 가족이 제공하는 경제적·정서적·서어비스적 부양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를 연구한 바 있다.⁸⁰⁾ 이에 의하면, 노인들은 현재의 부양상태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족부양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노인부양체제로서의 가족이 갖는 문제점은 우선 정서적인 면에서 비롯된다. 이를 Bengtson과 Black은 ‘발달단계에 따른 내기(developmental stake)’로 설명하고 있다.⁸¹⁾ 즉 연령과 가족주기에 따라 서로 상이한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이 자기 다른 세대로 하여금 ‘다른 양과 종류의 내기’를 절도룩하기 때문에 노부모와 젊은자녀간의 의견이나 태도에 크게 대립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노부모가 투자를 적게 해온 자녀들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인은 그 자녀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협상과정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서적인 문제점으로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의 역전(reversed role)’을 들 수 있다. Bengtson의 3세대가족연구에 의하면,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 세대간에 차이가 나타난다.⁸²⁾ 자녀는 노부모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양 보다 더 많은 양의 도움을 제공했다고 여기는데 반해, 노부모는 자녀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양 보다 더 적은 양의 도움밖에 자녀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부모가 자녀에 대해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역할이 바뀐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부모가 믿고 의지하려는 여러 방면에서의 의존성을 다른 가족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역량, 즉 ‘효도의 성숙성(filial maturity)’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제한된 가족자원 안에서 노부모의 일방적인 의존성을 그 자녀가 전담할때, 효율적인 부양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노인부양체제로서의 가족이 갖는 문제점은 따라

서 경제 및 서어비스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의 틀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⁴⁾ 교환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활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인간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보상을 제공해줄 교환자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은 다른 가족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교환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환관계의 상호작용에서 계속 의존적이고 무력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이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노년학자들은 노인이 갖는 교환자원의 부족을 사회가 보완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가족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가 가족의 노인부양을 어느정도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부양 및 안전기능은 그 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되며,²⁾ 이는 노인부양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생존에 대한 가족원의 안전욕구를 전적으로 가족 안에서 충족시키는 형태로서, 안전의 기능이 주로 가족 자체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제한된 가족자원 안에서 노인의 일방적인 의존성을 전담하는 자녀와 교환자원을 상실한 노인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

둘째는 안전의 급부가 주로 가족의 시장분배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가족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사적인 보험기업 등을 이용하여 부양수단을 확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능력의 급부가 주로 가족 밖에서 행해지고 가족원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욕구체계, 즉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기대와 의존을 충족시킬 수 없게된다.

셋째는 가족이 보장의 급부를 위한 일체의 계획이나 수행, 급부능력의 선택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가나 사회에서 법적인 사회보장책과 구제책 등의 공공의 보장급부에 의해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에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너무도 막대한 비

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업대상은 사실상 극히 일부 노인들에게로 제한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볼때, 노인부양체제로서의 가족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정서적인 욕구와 경제 및 서어비스적인 욕구를 모두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은 가족 고유의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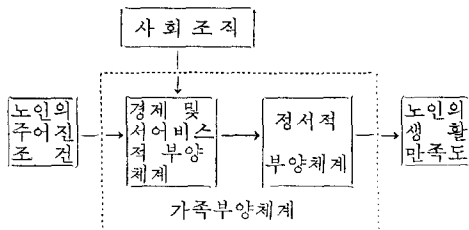
Ⅲ.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의 고찰로부터 가족부양체제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에게 정서적·경제적·서어비스적 부양을 제공해주는 주된 원천은 가족이다. 즉 원만한 가족생활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가족부양체제의 효율성은 사회가 가족의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을 보조함으로써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은 [그림 1]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가설적인 인과모형으로 발전되어 경험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그림 1] 가족과 사회의 연결(I)

A. 변수의 선정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구상하기 위해 [그림 1]에서 제시된 모형을 근거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① 정서적 부양

일반적으로 노년학자들은 노인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부양을 위해 정서적 가족관계망의 구축을 지적하고 있다.^{16, 30)}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부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가족내결속 (family solidarity)'¹⁾를 선정하였다. '가족내결속'이란 부모-자녀관계를 시간, 즉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용어이다.²⁹⁾

②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

노년기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은퇴 및 경제생활, 주거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이다. 이 중에서 은퇴는 가족부양체제를 통해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은퇴 자체보다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박탈감이 오히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만족도, 주거생활, 그리고 사회관계를 선정하였다.

③ 노인의 주어진 조건

노인이 지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이 포함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노인의 계층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교육정도과 가계소득*, 그리고 결혼상태를 선정하였다.

B. 인과모형의 설정

이상과 같이 선정된 변수들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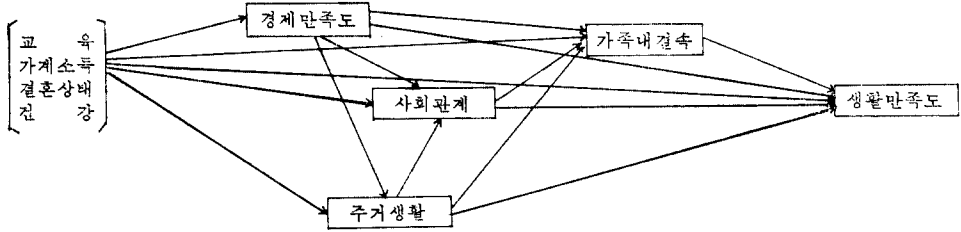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나타난 인과관계를 근거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I.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 결속이 강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II.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등 경제 및 서어비스적인 욕구가 충족될때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III.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등 노인의

*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소득, 직업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은퇴기에 속한 노인들에 있어서 소득과 직업은 측정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노인의 계층적 지위는 부양가족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계층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노인의 교육정도와 노인부양가족의 소득을 선정하였다.



[그림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설적인 인과모형

경제 및 서어비스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다.

Ⅳ. 노인의 경제적 욕구의 충족은 다른 욕구의 충족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Ⅳ-1. 노인의 경제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사회 관계는 더 잘 유지될 것이다.

Ⅳ-2. 노인의 경제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주거 생활은 더 나아질 것이다.

Ⅳ-3. 노인의 주거생활이 쾌적할수록 사회관계는 더 잘 유지될 것이다.

Ⅴ.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 건강 등 주어진 조건이 유리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Ⅵ.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 건강 등 주어진 조건이 유리할수록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다.

Ⅶ.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 건강 등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은 경제 및 서어비스적 차원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Ⅶ-1.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이 유리할수록 사회 관계는 더 잘 유지될 것이다.

Ⅶ-2.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이 유리할수록 주거 생활은 더 나아질 것이다.

Ⅶ-3.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이 유리할수록 경제 생활은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Ⅳ. 연구방법

A. 조사도구

①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에는 유진의 「노인생활

만족도척도」를 사용하였다.³⁹⁾ 이 척도는 <감정부문>의 8개 문항(긍정적부문과 부정적부문 각각 4개), <경험부문>의 12개 문항(긍정적부문과 부정적부문 각각 6개) 등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예(2점)', '그저그렇다(1점)', '아니오(0점)' 등 3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생활만족도 점수는 긍정적부문의 총점에서 부정적부문의 총점을 뺀 것이다. 기우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 r은 .935 이고, 내적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의 α 값은 .895이다.

② 정서적 부양

가족내결속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Bengtson과 Cutler가 분류한 차원들*을 근거하여 구성하였다.²⁹⁾ 가족내결속의 척도는 각 차원당 2문항씩 22개 문항으로 구성한 후, 예비조사 결과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2문항*은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20개 문항으로 하였다. 측정기준은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긍정적문항은 '동의한다'에 2점, '그저그렇다'에 1점, '동의하지 않는다'에 0점을 주었고, 부정적문항은 반대로 '동의한다'에 0점, '그저그렇다'에 1점, '동의하지 않는다'에 2점을 주

* Bengtson과 Cutler가 분류한 '가족내결속'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결속도 (objective solidarity) —
 - ① 레크리에이션
 - ② 대화
 - ③ 중요한 일에 대한 의논
 - ④ 도움을 주고받는 일
 - ⑤ 가족행사
- 주관적결속도 (subjective solidarity) —
 - ⑥ 이해
 - ⑦ 신뢰
 - ⑧ 용정
 - ⑨ 존중
 - ⑩ 애정
- 합의적결속도 (consensual solidarity) —
 - ⑪ 전반적인 가치지향에서의 일치

어 척도화하였다. 가족내결속 점수는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으로 하되, 예비조사를 통해 1문항씩 남은 차원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다른 차원들과 비중에 감계 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824이다.

③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담

사회관계는 노인과 이웃, 친구, 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함께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여, 모두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사회적 교류의 양과 질의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사회관계 점수는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으로 하되, 여가생활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한 문항에는 가중치를 두어 사회관계의 양과 질의 비중을 같게 하였다.

주거생활은 사생활, 안정성, 편의성, 사회참여 기회 등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노인 자신의 지각을 묻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측정기준은 가족내결속의 경우와 동일하다.

경제단축도는 노인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1점에서 4점까지이다.

④ 노인의 주어진 조건

교육정도는 교육단계별로 측정하였으며, 중퇴자는 졸업자와 같은 범주에 넣었다.

가계소득은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총 월평균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2분화시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점, 없는 경우는 0점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였다.

건강은 노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되, 응답범주는 긍정적부분 1개, 부정적부분 3개로 하여 건강의 양호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⑤ 기 타

그 외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실태를 알기 위해 성, 연령, 동거형태, 생활비조달상태 등의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 제외된 두 문항은 가족행사 차원의 1문항과 전반적인 가치지향에서의 일치 차원의 1문항이다.

B. 연구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각각 160명씩 총 320명으로 하였다. 논문의 목적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불완전가족의 노인들은 제외하였다. 계층별 치우침을 피하기 위해 대상선정에 있어 월평균소득을 고려하였고, 노인의 특성에 따른 편중을 막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 노인정 방문, 공원 등 노변에서의 면접을 고르게 실시하였다. 한 가정에 노인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명의 노인만을 면접하였다.

면접원은 연구자 자신을 포함하여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가정대생 10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320명 중 자료로서 적합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7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 있어서, 노인들의 일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실태

<표 1>에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 주는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동거형태, 생활비조달상태 및 의존정도별 분포와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평균소득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남자가 50.5%, 여자가 49.5%로 남녀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로서 노년기의 모든 연령집단을 고르게 나타내고 있다.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 국민학교 이하가 66%로서, 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태현의 연구에서 국민학교 이하가 83.5%나 되었던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을 서울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실태 (N=307)

성 별	%	결 혼 상 태	%
남	50.5	기 혼 동 거	47.6
여	49.5	사 별 거	48.2
합 계	100.0	이 혼	3.3
연령집단	%	합 계	100.0
60~64세	28.4	동 거 형 태	%
65~69세	24.1	노 인 단 독 세 대	16.0
70~74세	28.4	장남 부부와 동거	40.5
75세이상	10.1	장남의 아들 부부와 동거	10.1
합 계	100.0	딸 부부와 동거	9.2
교육정도	%	미혼자녀·손자녀와 동거	22.6
무 학	38.5	친척·기타 사람과 동거	1.6
서 당	6.9	합 계	100.0
국민학교	20.6	생활비조달상태	%
중 학교	11.4	자녀에게 의존	74.3
고등학교	15.7	직업소득	21.8
대학교이상	6.9	재산소득	9.4
합 계	100.0	재지출	4.2
월평균소득	%	퇴직금활용	2.3
10만원미만	8.3	국가연금·생활보조금	1.3
10~19만원	7.9	합 계	113.3*
20~29만원	13.2	의존정도	%
30~39만원	28.5	전적으로 의존	62.9
40~59만원	19.5	의존·독립혼합	11.4
60~79만원	16.2	전적으로 독립	25.7
80만원이상	6.4	합 계	100.0
합 계	100.0		

* 중복응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계는 100.0이 넘음.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30~39만원대가 28.5%로 가장 많고, 분포는 거의 정상분포에 가깝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상태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7.6%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2.5%로서, 배우자의 유무를 하나의 변수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에 무리없는 분포라 할 수 있다. 동거형태별로는 우선 40.5%가 장남부부와 동거하고 있어 직계가족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가족유형임을 알 수 있지만, 노인 단독세대도 16.0%나 되어 핵가족의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기도 한다.

조사대상자들의 부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고있는 경우가 74.3%로 제일 많았지만, 자신이 직접 일해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21.8%나 된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중복응답을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을 의존정도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62.9%,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일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11.4%,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생활하는 경우가 25.7%로서, 대체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B. 인과모형의 검증

인과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다. 이를 보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수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반드시 예시해주는 것은 아니다(표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족내결속, 사회관계, 경제만족도, 그리고 건강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55.4% 설명해준다.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결속에 대해서는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등 노인의 경제 및 서어비시적인 욕구의 충족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강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변수들의 가족내결속에 대한 설명력은 25.1%이다. 노인의 사회관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경제만족도, 교육정도, 건강, 그리고 결혼상태이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9.2%이다. 그리고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경제만족도, 교육정도, 가계소득, 그리고 건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서, 노인의 주거생활을 19.6% 설명해준다. 노인의 경제만족도에는 교육정도, 가계

〈표 2〉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293)

변 수	1	2	3	4	5	6	7	8	9
1. 생활만족도	—	.626**	.405**	.416**	.417**	.207**	.288**	.391**	.232**
2. 가족내결속		—	.297**	.420**	.300**	.184**	.184*	.251**	.217**
3. 사회관계			—	.199**	.235**	.333**	.100	.280**	.292**
4. 주거생활				—	.331**	.243**	.326**	.224**	.180*
5. 경제만족도					—	.230**	.406**	.221**	.118
6. 교육						—	.195**	.249**	.366**
7. 가계소득							—	.124	.096
8. 건강								—	.245**
9. 결혼상태									—
평균	41.467	49.930	14.160	9.747	2.583	2.190	2.550	3.000	0.513
표준편차	9.557	7.918	1.586	1.917	0.807	1.340	1.131	1.028	0.501

* p<.01 ** p<.001

〈표 3〉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회귀분석표

(N=293)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생활만족도	가족내결속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결혼상태	0.006 (.008)†	0.072 (.078)	1.533**(.167)	0.066 (.067)	0.004 (.005)
건강	1.727**(.186)	0.798* (.104)	0.714**(.160)	0.240* (.124)	0.101* (.129)
가계소득	0.071 (.096)	-0.007(-.007)	-0.035(-.035)	0.351**(.200)	0.261**(.365)
교육	-0.039(-.053)	-0.007(-.007)	0.687**(.201)	0.183* (.125)	0.763* (.127)
경제만족도	3.138**(.265)	1.386* (.141)	0.752* (.132)	0.516**(.210)	
주거생활	0.082 (.106)	1.267**(.317)	0.043 (.044)		
사회관계	0.300* (.144)	0.285**(.165)			
가족내결속	0.554**(.459)				
회귀상수	-3.740	27.575	7.784	6.399	1.448
R ²	.554	.251	.192	.196	.204

* p<.05 ** p<.001

† ()안의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소득과 건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설명력은 20.4%이다.

〈표 3〉에서 5%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만을 택해 인과모형을 재구성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따라 앞서 제시하였던 연구가설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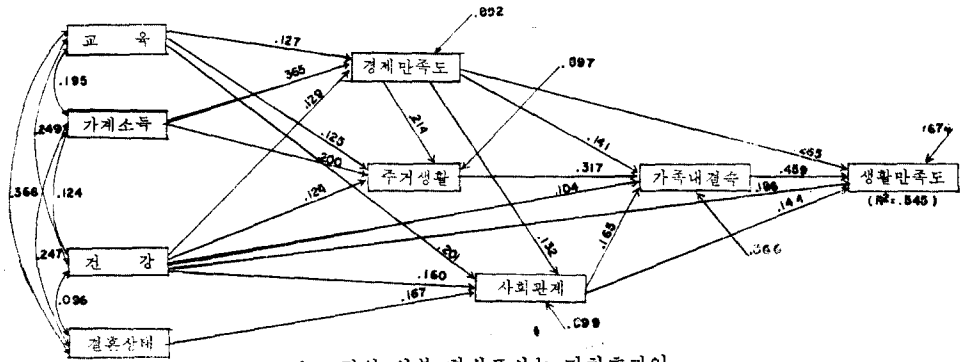
① 정서적 부양체계

모든 변수들 중에서도, 가족내결속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p=.459). 특히 이 가족내결속

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즉 경제만족도(p=.265), 건강(p=.186), 사회관계(p=.144)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는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족은 다른 어떤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며,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측면보다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가설 I>이 채택된다.

②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체계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체계의 변수들 중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 그림의 외부 화살표시는 간차효과임
 [그림 3] 노인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수는 '사회관계와 경제만족도이다. 따라서 <가설 II>는 사회관계와 경제만족도의 경우에만 채택된다. 특히 경제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족내결속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뿐 아니라($p=.265$), 노인의 사회관계와 주거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각각 $p=.132, .214$). 노인의 경제생활이 풍요로울때 생활의 폭도 넓어져 사회관계가 보다 윤택해질 뿐 아니라, 불편한 주거환경을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에서 불배 가설(IV-1)과 (IV-2)가 채택된다.

또한 경제 및 서어비스적 부양체계의 변수들은 모두가 가족내결속을 매개로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III>이 채택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관계는 <표 4>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노인의 주거생활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r=.416$),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그러나 가족내결속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p=.317$), 이를 매개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145). 노인의 주거생활이 그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가 노인과 그 가족이 더를 잡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바로 직접적인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노인의 주거생활이 쾌적할수록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결속이 더 강해지고, 그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총체적인 관계를 가지는데($r=.405$), 이 중에서도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220). 특히 이 전체효과 중 약 1/3이 가족내결속을 매개로한 간접효과이다(.076). 노인의 경제만족도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역시 높은 총체적인 관계를 갖는데($r=.417$), 총체적인 상관관계 중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는 .390이며,

<표 4>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그리고 건강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수	총체적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족내결속을 통한 간접효과	기타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사 회 관 계	.405	.144	.076	.019	.220	.185
주 거 생 활	.416	.145	.145	.098	.145	.271
경 제 만 족 도	.417	.265	.106	.019	.390	.027
건 강	.391	.186	.048	.098	.332	.059

* 총체적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이 중에서 가족내결속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106이다. 결국 사회관계가 잘 유지되면 노인은 그 자녀에게 덜 집착하게 되어 자신의 가족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경제생활이 만족스러울때, 노인은 그 자녀에게 덜 의존하게 되어 자녀의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 가족관계도 원만해진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노인의 사회관계와 경제생활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③ 노인의 주어진 조건

노인의 주어진 조건 중에서 건강만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p=.186$).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도 높다. 또한 <표 4>를 볼때,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의 총체적인 관계는 .391이며, 이 중에서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는 .332이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인과효과 이외에 가족내결속이나 경제 및 서서비스적 부양체제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과효과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각각 .048, .098).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면, 노인의 건강은 노인과 그 자녀의 가족내결속에 영향을 미쳐서($p=.104$), 노인들이 건강할수록 가족내결속도 더 강해진다. 동시에 건강은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만족도 등 경제 및 서서비스적 부양체제의 모든 변수들에 영향을 미쳐서(각각 $p=.160, .124, .129$), 이를 통해 노인의 가족내결속과 생활만족도에 기여한다. 즉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때 노인은 더 빈번하고 원활하게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주어진 주거상태에서 더 자율성을 느끼며,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부담이 줄어들므로 경제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 등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경제 및 서서비스적 부양체제의 변수들을 매개로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육정도는 노인의 사회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p=.201$), 이는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 즉 교육을 많이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한 노인들이 특히 사회관계를 잘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노인의 제충적 지위를 결정하는 두 변수, 교육정도와 가계소득은 노인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며(각각 $p=.125, .200$), 노인의 경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각각 $p=.127, .365$). 그런데 노인의 교육정도 보다는 노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주거생활과 경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수준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노인 자신의 경제적 여건도 좌우함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단지 노인의 사회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167$).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회관계를 더 빈번하고 원활하게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노인의 결혼상태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길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매개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여자노인들은 배우자를 상실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더 고립된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때, <가설 V>와 <가설 VI>은 건강의 경우에만 채택되고,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기각된다. 그러나 <가설 VII>은 전반적으로 채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제충과 결혼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가족내결속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살펴볼때 그쳤을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의 직접·간접효과 및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Lohmann²⁴⁾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노인의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족내결속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가족부양체제의 조건들을 결정함으로써 단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VI.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가족부양체제를 통한 노인생활만족도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노인의 주어진 조건, 경제 및 서서비스적 부양체제, 정서적 부양체제,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인과모형으로 구상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그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만족한다.

둘째,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생활 등에 결친 노인의 경제 및 서서비스적인 욕구가 충족될때 노인 그 자녀의 관계는 원만해지고,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향상된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인 욕구는 사회관계나 주거생활 등 다른 욕구의 충족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세째, 교육정도, 가계소득, 결혼상태 등 노인의 주어진 조건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족내결속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경제 및 서서비스적 부양체제의 변수들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건강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전체효과 중 많은 부분이 가족부양체제를 통해 매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전략적 의미를 갖는 몇 가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역사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해줄 때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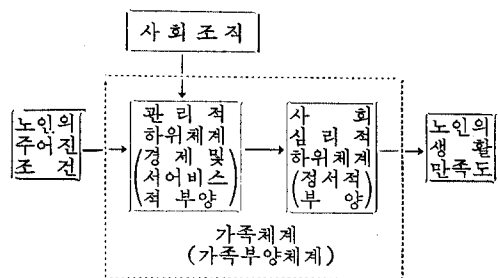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조작하기가 어려운 노인의 주어진 특성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족부양체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어진 특성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노인이 현재 처한 환경, 특히 가족환경을 개선해줄 때 노인의 만족감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부양은 가족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회는 부족한 가족자원을 보조해 줌으로써 가족의 노인 부양을 돕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에 있어서 가족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노인들은 특히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부양을 기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경제 및 서서비스적인 요소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효

과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관계를 매개로 하여 주어지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더해 준다면 그 전체효과는 매우 커진다. 따라서 그러한 서서비스들을 사회가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족을 통해 노인에게 제공해줄 때, 서서비스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세째, 사회가 가족의 노인부양을 보조해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경제적인 욕구는 다른 욕구들의 충족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나 노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稅制해택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의 부양기능은 가족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의 부양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체계적 접근(system approach)을 시도하여 보면, [그림 4]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가족체계는 관리적 하위체제를 통해 사회조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서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관리하여 노인성원 및 다른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관리효과는 심리사회적 하위체제인 가족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원만하게 계속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의 하위체제가 관리적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성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냐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4] 가족과 사회의 연결(II)

참 고 문 헌

1. Bleckner, L.(1969), "The Normal Dependencies of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A Book of Readings*, eds., J.R. Barry & C.R. Wingrove,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 1977, pp. 151~160.
2. 문숙재(1983),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전기능,"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제14호, pp.107~115.
3. Streib, G.F. & R.W. Beck(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pp.205~224.
4. Shanas, E. & M.B. Sussman(1981), "The Family of Later Lif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Policy," *Aging: Stability and Change in the Family*, eds., J.G. March, R.W. Fogel, H. Hatfield, S.B. Kieslen & E. Shanas, N.Y.: Academic Press, pp. 211~231.
5.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6. 김명자(198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제3호, pp. 45~54.
7.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pp.448~454.
8. Kalish, R.Q.(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9. Cumming, E., W.E. Henry(1961), *Growing Old*, N.Y.: Basic Books.
10. Havighurst, R.J. & R. Albrecht(1953), *Older People*, N.Y.: Longmans-Green Co.
11. Havighurst, R.J., B.L. Neugarten & S.S. Tobin(1965),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ed., B.L. Neugart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173~177.
12. Lopata, H.Z.(1973), *Widowhood in an American City*,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
12. Riley, W.W. & A. Foner(1968), *Aging and Society: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s*, N.Y.: Russel Sage Foundation.
14. Morgan, L.(1976), "A Re-examination of Widowhood and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9, pp.121~128.
15. Ward, R.A.(1979),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vol. 42, pp.438~445.
16.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pp.57~73.
17. Markides, K. & M. Martin(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4, pp.86~93.
18. Edwards, J. & D. Klemmack(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28, pp.497~502.
19. Liang, J.(1982), "Sex Differenci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6, pp.100~108.
20. Johnson, E.S.(1978), "Good Relationships between Older Mothers and Their Daughters: A Causal Model," *The Gerontologist*, vol. 18, pp.301~306.
21. Kozma, A. & M.J. Stones(1978), "Some Research Issues and Findings in the Study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Aged," *Canadian Psychological Review*, vol. 19,

- pp. 241~245.
22. Chatfield, W.(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vol. 32, pp.593~599.
 23. McClelland, K.A.(1982),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6, pp.723~732.
 24. Lohmann, N.(1980), "Life Satisfaction Research in Aging: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ransitions of Aging*, eds., N. Datan & N. Lohmann, N.Y.: Academic Press, pp.27~41.
 25. Wolk, S. & S.Telleen(1976),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Residential Constraint," *Journal of Gerontology*, vol. 39, pp.89~98.
 26. Conner, K., E. Powers, & G. Bultena(1979),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 Empirical Assessment of Later Life Patter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4, pp.116~121.
 27. Chapman, N.J. & M. Beaudet(1983),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8, pp.237~244.
 28. Troll, L.E.(1971), "The Family of Later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3, pp.263~290.
 29. Bengtson, V.L. & N.E. Cutler(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s., R.M. Binstock & E. Shanas, N.Y.: Van Nostrand Reinhold Co., pp.130~155.
 30.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31. Bengtson, V.L. & K.D. Black(1973),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eds., P.B. Bales & K.W. Schaie, N.Y.: Academic Press, pp.207~234.
 32. Bengtson, V.L.(1975), "Generation and the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pp.358~371.
 33. 윤진(1982), "<노인생활 만족도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초록집」.